

“불교 포교에 의학승 활동 절대적”

김성순 금강대HK교수, <불교학연구> 39호서 주장

불교는 종종 의학에 비유되곤 한다. 그것은 의학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뇌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의왕(醫王)'으로 불린 부처님 이후 불교 내에서 아픈 중생을 치유하는 것은 승려의 소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불교 내에서의 의학전통은 무척 뿌리가 깊다.

이런 불교의 의학전통을 부처님 재세시부터 근대시대까지 정리하고, 특히 불교포교에서 활약한 의승들의 활동을 주목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성순 금강대HK교수(사진)는 최근 <불교학연구>39호에 '한국 불교의학의 전래와 의승들의 활동에 관한 일고찰' 논문을 통해 불교가 사회 주요사상으로 자리한 배경에 의승들의 활약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승려의 의술은 ‘포교’라는 실리와 ‘자비행’이라는 명분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실천이었으며, 불교를 민간에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고대 인도시기부터 원시의학인 아유르베다를 토대로 동아시아 전래과정에서 중국의학을 흡수하고, 한국에서 민간의학화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불교의학은 기원전 100년 경 중국에 도래되며 인도의 의술을 담은 경전 번역을 통해 중국이승들이 나타나게 됐다. 중국에서는 인도의학 유입과 자체적인 불교의학 전개로 사원 안에 전문적인 의료공간이 있었으며 스님들이 의술에 달통한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601년 안함 스님 이후 의학 활성화 보살의 다섯 의무 중 의술 포함 고려 국가의료원서 스님들 활약

한국불교에서 최초의 의승은 601년 안함 스님이 중국에서 심승의 비법과 법화현의 공부해 605년 돌아왔다는 기록에서 출발한다.

김 교수는 “안함 스님이 저술한 발승서 안에 의술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보살과 신중가피력을 빌어 병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신앙행위가 늘며 의료와 기도, 주력을 함께 행하는 의승들의 활약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6세기 이후 불교가 신라의 공

인을 받는 데에도 기존 스님들이 가진 의술과 주력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임을 밝히고, 이후 불교에서는 보살들이 반드시 통달해야 하는 오법(五明) 중에 의방명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고려시대에는 의술이 관료화되며, 사원 내에도 별도의 의료시설이 자리하게 된다”며 “고려귀족들은 병을 앓거나 임종이 다가오면 사원으로 거처를 옮겨 중병을 사례가 많았으며, 문랑공을 비롯한 귀족들이 스님의 도움으로 악성종기와 같은 당시 큰 병을 수술해 고쳤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국가 구호시설인 대보원에도 의승들이 활동하였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의승들의 활동은 조선시대 들어서며 지방과 민간으로 급속히 퍼져나간다. 김 교수는 “탄선과 같은 스님들은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에 나섰다”며 “특히 한증승, 의승, 매골승 등 형태로 활동하며 불교가 살아남을 길을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한국불교 초기의 승려 의료행위는 비록 그 목적이 포교 내지는



생존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중생구제를 위한 자비행으로, 의학 발전에도 공헌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불교학연구> 39집에는 △이자람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테라와다 불교의 재가불자 수행도’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의 ‘금광명경의 여신과 한국불교에서의 신앙문화’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현릉의 유식사상’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의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 △박태원 울산대 교수의 ‘지적 이해와 원효의 선관’ 등 10개 논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사상사, 수행 작용 과정 연구 눈길

동국대 하반기 불교 박사 10명 배출... 석사 15명

올해 하반기 동국대에서 10명의 새로운 불교박사와 15명의 불교석사가 배출됐다. 이번 배출된 불교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불교박사 과정에서는 불교사상사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석사 과정에서는 불교 수행과 심성 작용에 대한 연구가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대학원 학위수여 목록에 따르면 불교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은 △최원섭 ‘영상미디어의 불교주제 구현 연구-영상 <일승법계도>에 의거한 인물형을 원용하여’ (불교학과) △박소영 ‘대승불교 재가불자의 수행과 위상 연구’ (불교학과) △김영석 ‘불교 언론에 나타난 의지와 그 표출행위의 상관성 연구’ (불교학과) △이흥구 ‘신라 의상의 업정용회적 수행 연구’ (불교학과) △박상갑 ‘법사사상의 성립과 전개에 대한 연구’ (불교학과) △진관 스님의 ‘백용성의 불교실천운동연구’ (선학과) △김현덕 ‘파니니(PANini)의 명사격어미 연구-(아슈타다이(Astadyayi))에 규정된 비락티(vibhakti)를 중심으로’ (인도철학과) △이영석 ‘임보리행론’의 보리심개념 연구’ (인도철학과) △오세덕 ‘조선시대 승정의 건축술과 계보 연구’ (미술사학과) △고승희 ‘조선후반기 패불화 불의

문양 연구’ (미술학과)가 있다. 특히 최원섭 박사의 ‘영상미디어의 불교주제 구현 연구’는 그동안 불교계에서 필요성을 인식해온 불교 영상포교의 활성화의 대안을 제시한 논문으로 영화나 방송 등에서 인용할 수 있는 ‘불교적 코드’의 해법을 의상 스님의 일승법계도 활용에서 찾았다.

또 진관 스님의 ‘백용성의 불교실천운동연구’는 용성 스님의 불교 실천 운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근대불교 변혁 과정에서 의 공헌과 민해 스님 연구와의 비교를 다뤘다.

불교를 주제로 한 석사 학위 논문으로는 △이숙현 ‘불교수행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불교학과) △김지애 ‘<육야경>의 여성관 연구’ (불교학과) △김관용 ‘신라 의상의 심성설 연구’ (불교학과) △김학배 ‘설일체유무의 인과론 연구’ (불교학과) △위하나 ‘무념의 의미에 대한 연구’ (선학과) △박현진 ‘초기불교의 나가(Naga)신앙 연구’ (인도철학과) △임혜정, 판차다쉬(Pancadasi)에 나타난 상가야가 사상(인도철학과) △이영선 ‘고려시대 풍락 연구’ (미술사학과) 등 15편이다.

노덕현 기자

日 부석사 불상 전래 과정 왜곡 드러나

부석사불상제자리보안위 답사서 왜곡 서적 판매 밝혀져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비롯한 약탈 추정문화재가 기증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온 것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담은 책자가 일본 대마도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화재환수국제연대와 서산부석사불상제자리보안위원회는 8월 7~9일 대마도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마도의 한국문화재 140여 점이 당시 고려와의 교역과 기증에 의해 받은 것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역사서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난당한 불상-대마와 도래불(조선불상)의 역사적 배경>의 50여 쪽 분량의 책은 나가토메 히신이라는 학자가 쓴 것이다. 책은 ‘불교전래 역사 개요’, ‘대마의 많은 도래불(조선불상)’, ‘고려말기의 난세와 교역’ 등 3개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3장에서 조선 건국과정에서 불교 탄압으로 대마도에 불상 교역과 기증이 활발히 이뤄져 많은 불상이 대마도로 넘어와 보존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또 ‘왜

구’에 대한 정의도 대마도인들과 고려인들이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으로 일본인을 배제하고 있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는 “불상 소장 권위에 대해 교류에 의한 취득이라는 주장은 당시 대마도의 사회와 경제적 여건과 왜구의 빈번한 침탈, 그리고 불상을 옮겼다는 기록 등 여러 증거 상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경임 중원대 교수도 “불상을 기증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왜구가 일본인이 아니라고 하려 고려인들이라는 주장이 실린 책이 판매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부석사 불상 환수 움직임은 미미하다”며 “현재 일본 군위안부 문제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와 함께 문화재 환수 필요성에 대한 움직임을 보다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1월 29일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본 대마도의 신사 등에서 일본 국가지정 문화재 3295호인 동조여래입



일본 대마도에서 판매중인 불상 전래 왜곡 서적

상과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관세음보살좌상 등 문화재 3점을 훔쳐 국내로 반입한 일당을 검거해 해당 문화재들을 압수해 문화재청에 넘겼다. 이후 관세음보살좌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된 일본 대마도로 넘어간 정황이 제기됐고, 부석사 신도와 서산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상에 대한 다양한 환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된다

중요무형문화재 근거 규정 구체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재 관람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였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나이제한을 폐지했으며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2년마다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문화재매매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적 조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기준 법령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됐다.

입법 예고기간은 9월 17일까지로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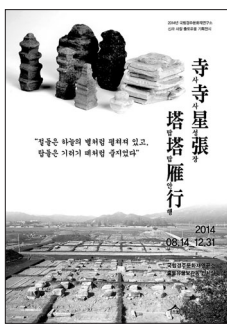
신라 사찰 유물 100여점 새롭게 선보여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명식)는 8월 14일부터 신라 사찰 출토 유물 기획전 ‘寺寺星張(사사성장) 塔塔雁行(탑탑안행)’을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사사성장(寺寺星張) 탑탑안행(塔塔雁行)은 절들은 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들은 기러기떼처럼 줄지어 있다는 의미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경주 황룡사, 분황사, 사천왕사, 망덕사 등 출토 유물 100여 점이 새롭게 전시되며, 1,300년 전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융성했던 신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한다.

전시 주제는 △ ‘경주 지역의 신라 사찰’ △ ‘사천왕사 목탑사 출토 녹유신장벽전’ △ ‘불상, 그리고 금인(金人)’ △ ‘조탑궁덕(造塔功徳): 탑을 세우고 공덕을 쌓다’ △



‘정병, 자비(慈悲)와 염원(念願) △ ‘광명대: 진리의 빛을 밝히다’ 등 다양한 주제로 신라의 사찰과 불교 문화재의 참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도중사(道中寺)’, ‘백률사(栢栗寺)’, ‘창림사(昌林寺)’, ‘△ 룡사(△龍寺)’ 등 신라 사찰의 이름이 새겨진 기와들이 새롭게 선보인다.

기획전은 8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054)777-8847

노덕현 기자

제 138회 신라사학회 학술발표회

신라사학회(학회장 김창겸)는 8월 23일 경주 성림문화재연구원 강당에서 제138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김재열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연구원의 ‘4~6세기 경주지역 출토 허리띠 장식(帶金具)의 부장양상 검토’ △강봉원 경주대 교수의 ‘신라

의 벽화고분과 화상성 존재의 가능성 검토’ △이동주 경북대 교수의 ‘신라 하대기와의 지방 확산 배경’ △진정환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사의 ‘나말여초 석조미술 발원자와 장인의 변화 양상과 의의’ 등이 발표된다. (031)709-7850

노덕현 기자

“이 게 정말 가능해?” ‘자아실현교실’ 개강 안내

강호 현인, 기사, 이인께 알립니다.

저 고복자 호사는 15년 전부터 육임학승서와 육임활용서를 많이 써내 여러분의 호응을 받아왔고, 이를 육임 CD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해 더 큰 애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미국동양대학교’ (대학입학인증/학사/학사단축/석사/석박통합/박사과정)를 설립해 한국, 중국, 독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당국으로부터 제가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 신문방송 진실보도만인보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인가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자아실현교실’을 열고, 아래 내용의 육임술을 단기간에 ‘진검승부적’으로 인도해 드릴 작정입니다.

학(學)이 아닌 술(術)은 오래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육임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 하시면 육임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3개월에 그 진수를 충분히 인도해드릴 것이며, 또 매우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육임의 진수를 얻어 가십시오!
더도 덜도 아닌 3개월입니다!

수강신청 과목

- ① 육임귀신술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귀신을 보는곳
나. 작사귀와 병 귀 구별법
다. 해소시절 개소 및 물건 지적, 또는 해소 가능여부와 수법 효과여부 판단법
라. 불제 등 제거 방법(부적/제례) 실기 시범 등
- ② 육임사주감정술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육임가정법으로 일생의 대별 즉각 판단술
나. 육임천장법으로 일생 행로 즉각 판단술
다. 육임기공법으로 일생 초, 중, 말년의 복분과 육친관계 즉각 판단술
라. 육임공방법으로 일생 운영 및 육친 기록여부 즉각 판단술 등
- ③ 육임풍수 묘지속판단술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 묘지에 물이 찻는가? 배 구덩이인가? 배가 뒤집어져 있는가? 없애져 버렸는가? 등
나. 이 묘지가 자신에게 어떤 탈을 부리는가? 무슨 이로운을 주는 가?
다. 이 묘지의 1대, 2대, 3대, 4대, 5대의 생업과 흥망성쇠 및 그 연유는?
라. 이 묘지의 육친은 조, 부, 모 형제자매 누구며, 이장을 해야 하나? 화장을 해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마. 육임 명당술 및 후손의 천부적 직업 교시술 등

- ④ 육임주식매매적기(滴期)술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언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얼마큼 사면 이익이 될 것인가?
나. 지금 팔까?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 최고로 오르내릴 시기는 언제인가? 등
- ⑤ 육임부동산매매시기(時期)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내 집, 내 땅이 언제 팔릴까?
나.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인가? 더 갖고 있으면 오를 것인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 등
- ⑥ 경매, 낙찰 성공술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번 경매낙찰에 성공하겠는가? 실패하겠는가?
나. 낙찰 경매에 성공할 금액은 얼마인가?
다. 현장에 누구(따)를 지정해 보내야 할 것인가? 직접 참여해야 하겠는가? 등
- ⑦ 위 전체과목 수강은 200만원입니다.
- ⑧ 신정 절차
검색창 미국동양대학교 검색 / 첫 창 우측 상단 ‘평생교육원’ 클릭 등록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008387-338 미국동양대학교
9월 1일 저녁 위 해당과목부터 개강 함.
- ⑨ 단, 자기 자신의 방향성에 고민하는 분, 또 치열하게 습득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저와 이내각 박사께서는 위 내용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을 ‘프로’로 인도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약속 드립니다.

강사 : 육임가 고복자 호사 / 이내각 부총장



02)738-8680

만인보 부설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미국동양대학교 1층 강당